

시는 내 삶의 구체에서 피는 꽃

— 미주문학(07. 가을호)의 시

정호승

(시인)

『미주문학』 가을호(통권40호)에 게재된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시를 쓰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조병화 선생께서는 “시는 살아가는 데는 식량이 되지 못해도 죽어가는 데는 그 위안이 된다”는 시작메모를 돌아가기 몇 해 전에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의 그 말씀을 가끔 되새김질하면서 ‘죽어가는 데에 위안이 된다는 것은 곧 살아가는 데에 위안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병화 선생께서도 ‘시는 위안의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파하신 것이라고 여겨봅니다.



시인. 1950년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등단.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포옹』,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다수.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저도 조병화 선생의 역설적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를 쓸 때는 '위안'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막상 시를 써놓고 보면 그 시가 저를 위안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제 삶의 비극과 그 고통 등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타자인 양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시가 발견되고 씌어지고, 그 시가 곧 저를 어머니처럼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주문학』에 발표된 많은 시들에서도 삶의 고통이 드러나 있고,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고통을 나타내는 언어들에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언어로 다소 씌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작품은 추상과 개념의 언어로 슬쩍 얼버무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상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구체에 비하여 감동을 주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꽃을 '아름답다'라고만 해서는 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꽃에다 내 삶을 투영시켰을 때에 시가 이루어집니다. 즉 꽃이 '운다'라고 생각할 때 시는 이루어집니다. 꽃에다 내 삶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꽃이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꽃이 우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시는 더 큰 감동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자신의 삶의 고통을, 그 고통의 햇빛과 그늘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시가 피상적으로 씌어지고, 피상적인 시는 자신과 남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친 김에 뇌성마비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노원예술문화회관에서 뇌성마비 시인들이 모여 시

낭송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낭송된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홀로 마시는
아버지 술잔 속엔
내 목발이 있다

입안에
툭 털어 넣으면
가슴에 걸리는
목발 하나

— 홍성원 「아버지의 술잔」 부분

이 시엔 뇌성마비 시인으로서의 삶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 이 시를 쓴 시인과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자신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타자의 삶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드러내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하고 이해함으로써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인의 시를 읽다가 그 시 속에서 나의 삶과 일치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아, 이 시인도 나와 같은 삶, 나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면서 그 시가 마치 제가 쓴 시처럼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번 호에 제가 주목한 시들은 그렇게 삶의 구체성이 있는 시들임

니다. 송정룡의 「나는 매일 손녀를 뵈러간다」는 두 손녀의 이빨 빠진 모습에서 노모의 모습을 발견한 시입니다. 손녀를 '만나러간다'고 하지 않고 '뵈러간다'고 존칭을 쓴 데서 손녀의 모습에 투영된 어머니의 모습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일곱 살, 아홉 살짜리 손녀들의 앞니 빠진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내 이빨 빼가는구나' 하시던 어머니의 말쑼을 떠올립니다. '90에 완전히 드러난 잇몸/합죽합죽 웃으시던 어머니 얼굴/지금 손녀들 가슴에서 웃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노모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이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 갈이를 하는 손녀들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맑은 웃음을 건네주는 시입니다.

신덕재의 「고향백담(故鄕白談)」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의 삶을 통해 드러낸 시입니다. 시인에게 있어 고향은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늘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대상으로서의 고향입니다. 결국 고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오늘의 삶을 그나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시 전체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내가 접시에 담아주는 오이를 먹으며 어릴 때 고향에서 '여치집 그 안에 넣어준/늙은 오이 한 조각'을 떠올립니다.('늙은 오이 한 조각'은 어쩌면 시인 자신의 오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지금은 여치집을 보릿대로 엮는/청년도 없고 소년도 없고/사람도 떠난/고향의 땅'이라고 노래합니다. 아울러 '찌르륵 울던 여치의 삶 모양/미국을 건너내는 나의/삶을 위해/늙은 일본 의사는 고혈압이/심하면 그 증세가 심장에/압력을 주어 신장을 파괴한다고/경고한다'에서 보듯이 여치와 자신과의 삶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백인과 흑인들/그들의 <힘겨루기> 재미에서/멀리는 한국사람

들'의 삶을 회의하고 저울질합니다. '나는 이곳 대학을 못 나온 탓일까/ 나는 이곳을 건디는 전문 인맥이 없는/탓일까/나는 이곳을 건디는 주인인 <내>가/없는 탓일까/나는 이곳을 건디는 이웃인 <내>가 없는 탓일까' 하고 회의합니다.

이 시는 3부로 나누어진 다소 긴 시이나 가식이 없고 장식이 없으며 감상(感傷) 또한 배제돼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공감대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길의 「떡 굶는 아이들」은 동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띍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아직도/흙으로 떡을 만듭니다'라는 구절에서 '세상의 어떤 곳'은 한국이며, 그 '아이들' 또한 시인 자신이자 유년시절의 동무들입니다. 그것은 그 동무들의 배꼽이 '단추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어/빨간 풍선'이 되는데, 그 배꼽을 '어릴 적 내 배꼽을 닮았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 흙으로 밥을 지으며 소꿉장난하던 유년시절이 가난했으나 그리웠나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가 유년시절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으로 떡을 굶는' 유년의 나를 통해 오늘의 나의 눈물과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보다 더 좋은 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성열의 「절벽」은 한 인간의 '죽음의 절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집 정원에서 늘 부지런히 일하던/꽃다운 나이에 혼자된 아주머니'의 늙음과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쓸쓸한 풍경들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여드는 '검은 정장, 흰 장갑의 괴물들', 팔려나가는 '아주머니 아끼던 가재도구들', 아주머니의 '남은 짐 보따리를 트럭에 실어가'는 젊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허망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장갑을 낀 흰 손에 때밀려/절벽

으로 떨어져/영영 못 오는' 한 여인의 삶의 종생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새삼 우리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가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시는 죽음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깊게 성찰하게 해줍니다.

정찬열의 「누가 시인일까」는 작은 일상사에서 얼마든지 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의 화자인 나는 '복숭아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아/베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것도 묵숨인디/잘 크는 나무를 뭇땀새 뜯금없이/잘라버리자 하느냐고' 기를 쓰고 말합니다. 화자는 아내의 말을 따라 복숭아나무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집 뒤뜰에 도화가 만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자는 '하마터면 생목숨 잘릴 뻔 했던/녀석의 눈에는/누가 시인일까/나일까/내 마누라일까' 하고 복숭아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데, 그 모습에서 해학성이 느껴집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작은 일상에서 찾아내고 소박하게 시로 표현한 시인의 가슴이 펍 따듯합니다. 시인이란 모름지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를 출발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소설을 기대한다

— 미주문학(07. 가을호)의 단편소설

황충상

(소설가)

실로 소설쓰기란 참 어렵다. 정신과 육신의 동시 노동으로 소설이
썩어지기 때문이다. 육신은 펄펄 나는데 정신은 혼곤하고, 정신은 환
상 속에 있는데 육신은 현실에 묶이는 이 두 축의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좋은 소설은 육신의 축과 정신의 축을 신적인 방법으로 조율
한다. 이렇게 쓴 소설이 기대한 소설을 창출해낸다.

신적인 방법, 이 관념의 말을 소설가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소설에서 실험해 보여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 초월의지로 소
설가는 그 방법을 찾기까지 자신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너무 힘
이 든다. 인간이 신적인 방법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육신과 정신이 동



소설가, 한국사이버대, 경기대 겸임교수. 《문학나무》 주간.

시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자신이 두 배 정도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힘이랴 신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재주가 많은 소설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적인 방법의 글쓰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그가 쓴 소설은 공허하다. 공허한 소설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좋은 소설쓰기란 실로 어렵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씌어진 《미주문학》 가을호 소설들은 슬픈 이민사를 조율함으로써 새 이민사를 전망하게 한다.

1. 여자는 여자를 의심한다

— 김영강 「젊은 시어머니」

여심은 불가사의하다. 그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은 질투로 영원할 수 있는가. 심증적으로만 남편과 젊은 시어머니의 불륜을 의심하는 가운데 이야기는 생성되었다가 스러진다. 사각관계에서 시아버지가 죽고, 삼각관계는 남편의 죽음으로 관계의 각이 없어지는 이 이야기는 존재의 부조리를 읽게 한다.

생전에 남편은 아버지와 불화했다. 그런 남편이 쓴 소설 첫 페이지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바친다’ 명시하고 왜 죽었을까. 소설 속의 답은 자연사, 심장마비다. 그러나 아내는 믿지 않는다. 남편이 쓴 소설 속에 답이 있을 듯한 암시로 소설은 끝날 뿐이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소설을 폈다. 첫 장에 씌어 있는 한 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소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알파벳 활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듯 시야에 펼쳐지면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설에다다 자기의 혼을 다 불어넣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아, 불쌍한 사람. 나의 고뇌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그가 그냥 살아만 있다면…….

소설 「젊은 시어머니」는 끝나면서 소설의 부조리와 생의 부조리가 만난다.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어지는 생에서 부조리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일까. 이 작품의 불확실한 답에 대한 김영강 씨의 앞으로의 소설이 기대된다.

2. 욕망의 축제는 끝난다

—김영문 「타인의 축제」

미모의 한 여자가 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 친구의 여자를 빼앗아 결혼한 남자는 아버지에게 아내의 몸과 마음을 빼앗긴다. 물질로 산 욕망은 물질이 사라지면서 허물어진다. 그렇듯 축제는 욕망을 확인 시킨다. 그리고 애인을 빼앗긴 남자, 남편을 빼앗긴 여자 이야기는 타인의 축제를 통한 자기 성찰을 하게 한다.

‘몸은 주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다. 몸 가는 데 마음도 따라 간다.’
어느 쪽이든 사람은 육신과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 그렇군요. 이미 일어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보다는 우리의 앞에 놓인 일들이 더 중요하군요. 알면서도 왜 잃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

래요. 남편이 내 침대에서 나의 친구와 그렇게 부둥켜안고 정사를 벌이던 것도 지나간 일이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그 악몽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소유와 욕망에 대한 집착이 미련을 증폭시킨다. 그 미련은 배신에 대한 복수를 하기도 한다. 복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김영문 씨의 「타인의 축제」에서는 악몽을 지우고 미래를 중요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독자에게 묻고 선택권을 맡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욕망, 그 타인의 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독자의 몫이 되고 있다.

3. 슬픈 이민의 노래

— 윤금숙 「젯빛 노을」

15년 형기를 한 달 남기고 죽은 남편의 회상기는 이민의 절고와 정신질환이 맞물려 있어 그 리얼리티가 심도 있게 읽히는 작품이다. 고국을 떠나오게 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책은 꿈속에서마저 아파하는 이민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살고 갈 사람을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오자고 했을까.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일까. 내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가끔은 그가 죽어버렸으면 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 곳이 뻥 뚫려 바람이 술술 들어왔다. 온 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그가 세상에 살아 있기만 해도 바람막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남편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던 세월이 십사 년

이었지만 그는 항상 내 마음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젯빛 노을」은 독자에게 ‘실존은 아픈 만큼 실존한다’는 말을 상기시켜준다. 차라리 죽어주었으면 했던 남편이 부재의 실체로 다가올 때 아내의 실존은 허망의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된다.

어떤 쓸쓸함이 곁들면서도 장엄한 젯빛 노을.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실패한 인생의 종장을 젯빛 노을로 빗대지 않았을까. 그렇다. 윤금숙 씨는 「젯빛 노을」에서 다음의 묘사로 그 답을 보여주었다. ‘수평선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던 젯빛 노을은 마지막 빛을 발하며 바다로 떨어졌다.’ 자연의 생멸 곧 ‘바다로 떨어진 빛은 다음날 다시 빛으로 솟는다’는 암시로 읽힌다는 것이다.

김영강 씨의 「짧은 시어머니」, 김영문 씨의 「타인의 축제」, 윤금숙 씨의 「젯빛 노을」 세 분 소설 모두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로서 감상하기에 어떤 아쉬움을 말할 수 있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칙 논리의 뼈아픈 사랑 이야기가 낯설게 보이는 사랑이야기로 변환되어 신의 방법이다 싶은 새로운 소설을 보여주길 바란다.

2년 동안 어쭙잡은 소설가의 소설 감상을 지켜 봐준 《미주문학》 문학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수필과 시대정신

— 미주문학 (07, 가을호)의 수필

하길남

(한국문학비평가협회이사)

1. 머리말

우리는 한용 문학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럴 것이다. 한 작품이 그 시대정신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어느 시절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은 이미 그 글 속에서는 그 체취를 풍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작가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의 진실들이 외면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언중에 시대적 입김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대상 및 월간수필문학상 등 수상, 수필집, 비평집, 문학기론서, 수필작법 등 12권 펴냄. 현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필창작 전담교수.

우리가 격동기에 참여시와 참여수필이 버팀목이 되어 왔듯이 이 시대 우리 문학인들 또한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정한 수순 일 것이다. 우리의 심층적 의식 속에는 그 옛날 선비 정신의 파편들이 숨어 있듯이 말이다. 이른바 격동기에 쓰여진 이른바 「도독춘」이라는 시가 경향각지의 지가를 올렸듯이 말이다.

아무튼 문학적 참여투쟁은 결국 사회적 제도의 개선보다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적 정서순화나 미적 정돈을 말하게 된다.

2. 고대진 수필 「절규」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화자의 작품은 시대적 고발장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시나 소설이 사회 고발적 즉 사회 참여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소임을 해왔다 해도 좋을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김지하 시인의 ‘도독춘’ 같은 한 시대의 시적 자기반성을 시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나 수필의 경우 늘 자기 신변사에 급급한 채, 사실상 사회성 짙은 중수필을 내세울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자기 체험 제 삶 그 일상을 쓰는 수필이 사실상 사회 고발적 특성에 적합하게 생각되지만 그만큼 목청을 높인 경우를 보지 못한 사실이었다. 그만큼 수필가들의 취약성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된다.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인 평온함과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미술 작품이라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는 작품은 무엇일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을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노르웨이 화

가 몽크(Edvard Munch, 1863~1944)의 절규(scream)라는 작품이 그중 하나라고 하면 별 의견이 없을 듯하다.’

이 인용된 부분은 수필 절규의 서두다. 화자가 말하는 ‘불안의 시대의 절규’를 우리 문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세상이 불안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서 필자는 ‘문학적 심성 전화’를 이야기를 한 셈이다.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80년대의 한국사회를 절규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소 소름 터 텅 빈 도시……”

이어지는 시어를 구사해온 것이다. 아예 말문이 닫혀 떨고 있는 모습을 그린 문학의 슬픈 우화 같은 소리에 스스로 전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화자는,

소리 지르며 울 수 있는 슬픔은 얼마나 부러운지,

하고 역설적 감회를 세상 밖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다. ‘미쳐 버리면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미쳐 버리는 행복’ 볼 장 다 본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이론도 배려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극한상황에서 화자는 다만, 글을 쓸 수 있는 고통을 염원하게 된다. 여기서 글은 하나의 요술방망이가 되고 행복한 섭리의 은사가 되는 것이다.

이 수필의 말미에서 화자는 ‘그러나 지금, 나는 글을 쓰고 있다’고

썼다.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이 있다. 그만큼 쓰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수필을 쓰는 일이 역시 중요한 것이다. ‘소리 지르면서 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글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쓴다는 것이 치료의 일종인 까닭이다. 이른바 시 치료나 수필치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절규하지도 않아도 될는지 모를 일이다. 이미 화자에게는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수필적 기법의 한 울타리요, 모든 수필적 기법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살아서 행동하는 수필을 우리 독자들은 만나 마음 든든하다 하겠다.

결국 절규의 언덕에서 우리가 사는 형국이지만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80년대 한국 사회를 보며 절규하고 있는’ 모습에서 역시, 수필은 스스로 자신의 자각과 정립을 위해 인간 그 자체 내부에의 절규를 또한 시도할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그래 또한 새로운 스타일에의 절규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3. 정순옥의 수필 「나이아가라 폭포」

화자의 ‘나이아가라’에 화두 즉 그 폭포는 한 마디로 ‘정상적인 강물의 흐름에서 벗어난 하나의 장애’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순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장애자가 토해내는 기염인 것이다.’ 물은 그 깊이에 따라 코발트 연초록 은빛색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폭포는 단연 기형일 수밖에 없다. 앞장에서 우리는 ‘절규’의 그 엄청난 기형적 난타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역시 폭포 또한 정상적 흐름을 벗어난 파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폭포의 위력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뜻 없는 것은 없다. 어느 양반이 우리는 <나 이야기라 모임>을 결성했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즉 '나이여! 가거라'라는 의미라고 했다. 영원히 젊고 싶은 욕심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우리는 무지개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지개를 영글게 하지 못하는 미미한 삶을 우리는 경원해 오지 않았던가.

굴곡이 예술 공간이 되어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커다란 기쁨의 선물이 있음을 물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폭포.

사실상 우리는 이 무지개를 피우기 위하여 태어나 노력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인생의 무지개를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이야가라 폭포'는 장애의 장이요, 무지개는 개화의 장으로서 서로 비교된다 하겠다. 이 수필의 숨은 비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폭포나 무지개나 모두 그 진료는 물이 아닌가. 물론 빛의 반사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 래 물은 사실상 생명의 원천이었다.

이제 우리는 화자의 수필을 읽으면서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은 역시 아름답다는 것이니, 우리 인간이 적절히 지향해 나갈 이정표이기도 할 것이다. 화자는 여기서 무지개같이 빛나는 수필을 쓰고자 내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기미를 우리는 엿보게 된다.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나 불멸의 아름다운 선율을 남긴 악성 베토벤의 인내 앞에 나는 부끄럽다.

장애를 딛고 위대한 인물이 된 예는 수없이 많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호 킹 박사의 경우처럼. 장애는 어쩌면 성취를 위한 의지가 성한 사람들보다 더 강렬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곰곰 따져보면 세상에 장애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듯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은 사실상 자신을 배반한, 어떤 의미에서 장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정상이 아닌 것을 모두 장애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결국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정실의 수필 「아버지의 초상」

이 수필은 세 가지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른바 합성적 구성을 원용한 작품이다. 물론 1항은 빼고 2나 3항이 딸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수필 구성의 성격상 합성구성이라 하겠다. 제 1항에서는 화자가 가족과 붉은 빛의 수캐 한 마리와 LA로 출발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딸이 미국에 오기 위해 입국수속을 마쳤으나,

“아버지가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도와 줄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용돈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유도심문에 의해 결국 딸은 그만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오지 못하고 만다. 결국 말장난이거나 실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마침내 일생을 통해 볼 때 그 사람의 비극이 아닐 수 없으니, 행위나 그 삶의 실속은 미리 예방책에 의해 감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의 연속은 마침내 나와 나를 둘러싼 생활권 속에서 즉 실수와 실속이 주는 함수관계를 점검해보게 된다. 그런 예화를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된다. 인간의 실수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기 문제 즉 패배의 전주곡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화자의 남다른 표현기법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딸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마치 대형 고기가 미끼를 낚아챌 때의 순간이 낚싯대로 옮겨지는 강한 전율 같은 것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백양나무 밑동에 몸을 붙여서 소변을 보는데 눈앞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들개마냥 동네를 헤집고 다녔다.

제3항에 보면 ‘어느 점쟁이가 날더러 올해부터 삼계(三災)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딸에게서 신랑감을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아들은 또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 그 복점처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화자의 아버지는 당부하게 된다.

같은 치과 전공인 남편이라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의 이빨을 빼겠다는 막말을 하지 말아라.

고. 염원이 그 점괘대로 된 셈이다. 그래서 언제나 ‘아비의 초상’은 영원한 것이다.

5. 지희선의 「달빛 사랑」

제목부터가 독자들을 현혹시키게 한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달빛을 쳐다보고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과 사랑을 노래해 왔던가.

휘영청 높이 뜬 달은 여전히 유정하고 낭만적이다.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달빛 사랑은 은유적이다. 현란한 네온 사랑이 아니라, 은은한 불빛 사랑이라 좋다.

그렇다. 그 은은함 속에 모든 이야기기 무르익기 때문이다. 무쇠처럼 뜨겁다가 곧 식어버리는 세속적 충동들은 얼마나 천박한가. 수필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읽고 또 읽으면서 씹고 또 씹으면서 은은한 단물이 흥건히 고이는 그러한 작품들이 아쉽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 신들린 것처럼 바쁘게 돌아가기만 한다. 잠시 쉬면서 사색에 잠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자신의 정체를时时각각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수필적 인생, 그 청초한 미적 정돈, 그러한 시샘이 아쉬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수필에 정이 가고 사랑이 간다고 믿어보고 싶다. 앞으로의 정진을 지켜보고자 한다.

수필은 그대로 삶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를 적는 체험의 한낱 버릇을 넘겨 짚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인생에 있어서 지니게 될 당위성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더 유의하여 수필의 평문이 살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